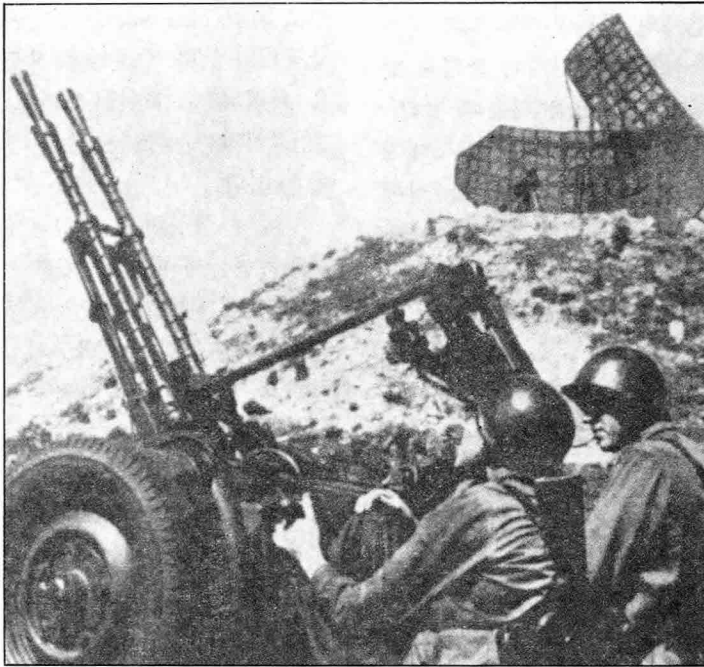


北韓의 새로운 武器体系

朴 盛 根 (譯)



▲소련제 ZPU-2 輕防空火器

〈표 1〉 북한의 自走砲 体系

명 칭	구 경	형 식
M-1974	152 mm	자주 평사/곡사포
M-1975	130 mm	자주 평사포
M-1977	122 mm	자주 곡사포
M-1978	180 mm	자주 평사포
M-1981	122 mm	자주 평사포
M-1985	122 mm	자주 평사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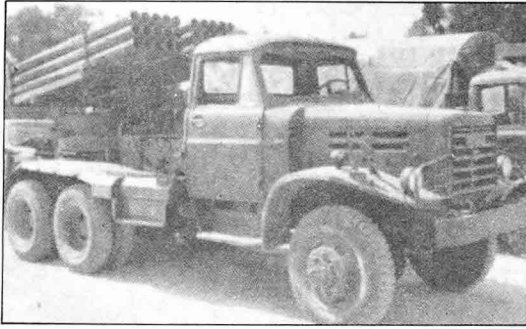
세계가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북한은 정치적, 재정적 이유 때문에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한동안 中共의 무기체계 설계 및 생산에 보조를 맞추어왔었다.

그러한 무기체계들은 人民軍(North Korea People's Army)의 특별 요구에 따라 설계되었을뿐만 아니라 외화 획득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해외(이란, 시리아, 니카라과)에 판매되었다.

북한 인민군은 1970년대 중반에 차량화 사단과 기계화 사단의 신속한 진출에 따른 화력지원을 위해서 牽引砲가 매우 부적당하다는 것을 깨닫고 포병의 기계화를 추구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필요한 것을 해외에서 획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민군은 독자적으로 자주포체계를 설계하고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북한은 〈표1〉과 같이 적어도 6種의 자주포체계를



◀122mm MRL

생산·배치하였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M-1975와 M-1978형은 군단급에 배치되었으며, M-1974, M-1977, M-1981 및 M-1985형은 여단 및 사단급에 배치되었다.

M-1977 자주곡사포는 중공제 54-1형 자주곡사포를 모방하여 생산한 것으로 보이며, M-1978은 미국의 175mm M-107 또는 소련의 203mm 2S7과 유사한 것으로 믿어진다.

이상의 무기체계들이 '곡산砲'라고 지칭되고 있는데, 이는 최초로 곡산에서 식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자주곡사포체계와 더불어 포탄의 완제품도 생산하고 있다(122mm 세열고폭탄, 130mm 세열고폭탄 등).

1960년대초 이래 중공에서 설계한 소수의 62형과 63형 경전차가 생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들 독자적으로 전차의 설계 및 생산을 시도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80년대초 해방절 축하행사에서 평양시가에 새로운 輕戰車가 등장하였다.

그 전차는 독자적으로 개발

하여 생산한 것으로서 소련의 PT-76과, 중공의 63형 경전차를 복합하여 제작한 것 같다. 이 전차의 포탑은 PT-76의 것과 유사하나 몇가지는 분명히 달랐다. 相異點은 다음과 같다.

○ 對戰車 유도탄 발사대가 포탑 전면부 주포의 축선상에 장착되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소련의 AT-3 Sagger 또는 중공의 HJ-73(Red Arrow-73) 일 것이다.

○ 포탑의 通風口(PT-76에는 포탑후면 중앙에 위치)는 포탑 후면 우측에 위치되어 있다.

○ 戰車長席은 포탑 좌측에 있으며, 반원형의 해치(전면으로 열리는 형태)가 부착되어 있다.

원형 톱니가 해치 왼편에 부착되어 있으며, 未詳의 물체

가 해치 뒤에 붙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치가 포탑 우측에 부착되어 있다.

○ 이 전차의 主砲는 포신 끝에서 3분의 1쯤에 소염기 구멍이 있으며, 포구 제퇴기는 없다. 주포의 구경은 85mm로 63형의 것을 개량한 것으로 보여진다.

懸垂裝置는 6개의 로드휠이 등간격이 설치되어있으며, 구동륜은 차체 뒤에 장착되어 있고 遊輪(idler wheel)이 앞에 장착되어 있다. 수륙양용 작전을 위해 케도가리개(스커트)를 설치하는 볼트나 볼트 구멍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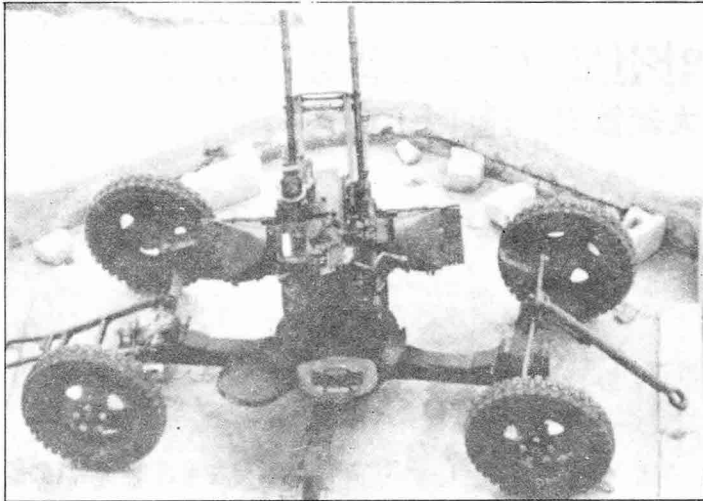
얼마나 생산하여 인민군에 배치하였는지 알지는 못하나, 이 전차가 인민군 기갑사령부 輕전차대대들과 기계화/기갑사단의 수색대대 및 독립기갑여단의 PT-76과 62/63형 輕전차와 대체될 것으로 본다.

북한의 본 전차형의 설계 명칭에 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보당국에서는 가명칭으로 M-1985 輕戰車로 정하였다.

中共 義勇軍이 한국전에 투입되었을때 다연장로켓발사

〈표 2〉 북한의 4種類 다연장로켓발사기

명칭	구경	형식
?	107 mm	MRL
M-1977	122 mm	MRL
BM-11	122 mm	MRL
?	200 mm +	MRL



▲ZPU-4 14.5mm 대공포

기(MRL)가 인민군의 화력지원 전술 및 敎理에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 오늘날 인민군은 약 2천5백문의 MRL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초에 중공제 63형을 모방하여 독자적인 MRL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적어도 4개 종류를 생산하고 있다.(<표2> 참조)

12개 발사관의 107mm MRL은 중공제 63형 MRL을 모방 생산한 것이며, 200mm+MRL은 소련제 BM-24와 유사한 것이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B-11이다.

122mm BM-11은 소련의 BM-21을 模倣 生産한 것이다. BM-11은 소련의 BM-21 및 여타 蘇·중공의 MRL과는 구별되며, 30개의 발사관이 단일 회전대에 장착되어 있다.

본 무기체계는 소련제 Ural-375D 트럭 또는 일본제 商用 트럭을 개조한 차량에 장착한

것이다.

BM-11은 소련, 중공 및 북한제 표준 122mm 로켓을 사용할 수 있다. BM-11은 1970년대 후반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상당량을 생산했다.

인민군은 BM-11을 야전군급 MRL사단과 군단급 MRL여단/연대에 장비했다.

MRL師團은 戰略的 資産으로 한국과 미군의 요새화된 진지에 대해 화력을 집중시키며, 군단급 MRL여단/연대는 작전지역의 제압, 차장 및 공격하는 군단에 대한 일반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BM-11은 또한 제3세계인 이집트, 이란, 리비아, 시리아(시리아 경유 PLO 및 이스라엘), 기타 국가들에게도 운용되고 있다.

현재 이 무기는 이란-이라크 전쟁에 사용되고 있으며, 북한이 이란에 공급하였다.

BM-11과 BM-21은 발사관이

30개와 40개라는 분명히 다른 점은 있으나 그 특성은 유사하다.

BM-11 MRL의 제원

- 승 무 원 : 5명
- 구 경 : 122mm
- 발사속도 : 30발/15초
- 장전시간 : 8~9발/분
- 탄 두 : HE, 연막, 화학
- 중 량 : 로켓-66kg
탄두-6.4kg
- 射 程 : 최대-20,500m
최소-2,500m

인민군은 한국전쟁의 경험과 한국/미국의 항공전력의 우세를 대비하여 대량의 對空 武器를 모든 梯隊에 장비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대공화기는 14.5mm와 37mm 이다.

북한은 현재 14.5mm와 37mm 등 2개 구경의 自走對空 砲를 생산하고 있다.

그들은 63형 또는 531형 APC 차체에 ZPU-2/4를 탑재한 14.5mm 체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37mm는 무한궤도 차체에 탑재하여 'Fire Can' 또는 'Wiff Can' 射統레이다를 장착하고 있다.

14.5mm는 모든 梯隊에서 식별되었고, 37mm는 기갑사단과 군단급 高射砲 연대/여단에 장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참 고 문 헌

- ▲ <New North Korean weapon systems>, <Jane's Defence Weekly>, 7. Nov., 1987, p.p 1059~1061.